

내년 최저임금

월 22萬7千百30원 확실

92.10.8

8.6%인상 근로자代表 퇴장속 잠정 합의

심의회, 10일쯤 확정

내년도 최저임금이 월22만7천1백30원(시간급1천5원, 일당8천40원)으로 잠정 결정됐다.

이같은 최저임금인 올해보다 시간급기준으로 8.6% 인상된것으로 지난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을 이다.

원장趙璣濟(는 7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사대표및 공의위원 26명중 근로자대표 9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같은 인상을에 잠정 합의, 앞으로 근로자 대표들이 회의에 계속 연 2회이상 불참할 경우 사용자대표와 공의위원들만 이므로 이결을 거친 어니10

일정 확정키로했다.

이날 회의에서 근로자대표측은 10.8%(시간급1천25원), 사용자대표측은 7.6%인상안(시간급9백95원)을 각각 수정제시한 뒤 공의위원들이 양측안을 바탕으로 8.6%의 수정안을 내놓아 표결에 들어 가려 했으나 근로자대표들이 반발, 퇴장함으로써 자동 회됐다.

일 계속해 근로자대표들에게 회의출석유무를 보낼 방침이나 한국노총 李鍾完 사무총장(위원장) 회에 불참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여서 사용자대표와 공의위원만으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.

내년도 최저임금 적용10인 이상 사업장은 7만5천여개소(총근로자 5백5만5천여명)로 이들업체근로자의 4.5%인 약22만7천5백여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추정되고있다.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노동부장관의 재신결하를 밝아 오는12월14일까지 확정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.

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△89년 23.1% △90년 15% △91년 18.8% △92년 12.8%로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을 올